



# 수능 모의 평가

▶ 영역별 분석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 |       |       |       |       |       |
|-------|-------|-------|-------|-------|
| 1. ③  | 2. ①  | 3. ①  | 4. ④  | 5. ④  |
| 6. ⑤  | 7. ②  | 8. ②  | 9. ④  | 10. ② |
| 11. ② | 12. ① | 13. ④ | 14. ② | 15. ① |
| 16. ④ | 17. ① | 18. ⑤ | 19. ④ | 20. ⑤ |
| 21. ② | 22. ③ | 23. ④ | 24. ④ | 25. ⑤ |
| 26. ⑤ | 27. ① | 28. ② | 29. ③ | 30. ① |
| 31. ③ | 32. ② | 33. ⑤ | 34. ④ | 35. ② |
| 36. ⑤ | 37. ① | 38. ④ | 39. ① | 40. ③ |
| 41. ③ | 42. ④ | 43. ③ | 44. ② | 45. ⑤ |
| 46. ⑤ | 47. ④ | 48. ③ | 49. ⑤ | 50. ③ |

### 출제경향

#### ■ 듣 기

이번 듣기 영역은 방송의 대담을 듣고 이어질 말을 이끌어 내는 내용 추리의 1번 문제, 학생의 발표를 듣고 발표 의도를 파악하는 2번 문제, ‘부탁하는 말하기’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대화를 듣고 사례의 유형을 판단하는 3번 문제, 신입 회원 면접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특징과 내용을 평가하는 4, 5번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5번 문제의 경우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전체적인 말하기의 특징이 아니라 부분적인 특징을 지적하는 내용의 선지가 정답으로 제시되었다. 듣기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평가 요소에서 특별히 벗어난 문제는 보이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쓰 기

이번 9월 모의 평가 쓰기 영역에서는 최근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수험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주어진 자료를 통해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유추적 사고, 조건을 반영한 쓰기, 주어진 개요를 추가 자료와 심화된 문제 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개요로 발전시키는 활동을 출제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자료에서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주어진 개요에 다시 적용하는 문제가 새롭게 세트 문제로 출제된 점이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시도로 평가된다. 이는 2009학년도 시험과는 다른 출제 방식이다. 주어진 글을 퇴고하는 문제는 계속 반복 출제되는 기본 문제이다.

#### ■ 어휘·어법

대명사의 쓰임, 어휘의 용법을 물었던 2009학년도 수능과는 달리 이번 모의 평가에서는 관용어의 구성 원리를 소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출제 의도는 제시된 원리에 따라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발화 형식을 인용과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고 이를 사례를 통해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요약하면 어휘·어법 영역은 ‘언어 활용 능력’을 중시하는 최근 흐름 속에서 출제 대상에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문 학

##### ● 시가 복합

일제 강점기의 작품 이육사의 ‘소년에게’와 1980년대의 작품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와 고전 시가 이현보의 ‘어부단가’를 구성하여 출제하였다. 현대시는 시대를 안배한다는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고, 고전 시가는 전형적이고 익숙한 작품

을 선정하였다. 시가 복합 영역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출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면에서 보자면 최상의 난이도를 보여 주는 문항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풀 수 있거나, 세부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적절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고전 소설**

영웅 군담 소설 ‘옥루몽’이 출제되었다. ‘구운몽’과 비슷한 부류의 소설이므로 작품을 이해·감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6월 평가원에서 판소리계 소설인 ‘수궁가’가 출제되었기에 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영웅 군담 소설류의 작품이 출제되었다. 특히 ‘옥루몽’은 남녀 주인공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해후를 그린 염정 소설로서의 특징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있는 소설이다.

최근 고전 소설의 출제 경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옥루몽’에서도 낯선 한자와 표현들을 대폭 줄여, 수험생으로 하여금 작품의 중심 내용과 주된 형식적 측면을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어렵고 낯선 한자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어휘 수준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만이 지니는 형식적 장치, 인물 반응과 사건의 전개 양상, 작품 내용과 연관 지어 적용하는 한자성어 문제 등 소설을 제대로 감상하고 이해했는지를 묻는 전체적인 감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 경향은 2010학년도 수능 고전 소설에서도 그 기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 소설**

이창준의 ‘잔인한 도시’는 심층적인 인간 소외 의식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징성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난 6월 모의 평가에서 출제된 신경숙의 ‘외딴방’도 인물의 내면 서술에 중심을 둔 작품이었다. 이처럼 서사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출제되고 있다. 또한 소재나 공간의 상징성을 통해 관념적인 주제를 다룬 소설이나 1970~80년대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소설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희곡**

극문학의 경우 매우 익히 알려진 작품인 함세덕의 ‘동승’이 출제되었다. 수험생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한 작품이어서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본문 및 선지에 대한 꼼꼼한 독해가 없으면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도 더러 있어 정확한 독해 및 감상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선 대사의 세 유형인 대화, 독백, 방백의 성격과 기능을 <보기>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본문에 삽입된 음향 효과의 기능을 묻는 문제와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대사, 지시문, 그리고 배경 등 희곡의 중심 요소들을 망라하여 균형 있게 문제를 배분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세 문항 다 공통적으로, 선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1차 전제는 어디까지나 본문에 있다는 사실만 망각하지 않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 **독 해**

● **인문**

그 동안 인문 지문은 철학, 윤리학, 역사학 등 다방면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지난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역사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으며,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는 동양 철학에서 지문을 선정하였다. 특히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지문화하여 통합 교과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수능의 본질에 충실한 지문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사회에서 인식한 하늘의 개념을 의미 변천 과정에 따라 서술하여, 서양의 사고방식이 만연한 현실에서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지문이다. 하늘의 개념이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 **과학**

작년 수능에서는 ‘공룡 발자국’ 연구를 통해 공룡의 특징을 정리한 글이 출제되었고, 6월 모의 평가에서는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통해 알아본 생물 다양성 연구에 관한 글이 출제되었다. 작년 수능에서는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이론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과학 지문이 주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주가 되는 만큼,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도 그 흐름은 유지되었다.

● **사회**

6월 모의 평가에 이어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도

짧은 지문을 읽고 두 문항을 푸는 미니 형식의 영역 유형이 출제되었는데 사회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 유형 역시 사실적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추론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로 6월 평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니 형식에 대한 출제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한다면 문제 풀이와 시간 배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 언어

작년 수능의 경우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이,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언어 지도’가 출제되어 독해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데 반해, 이번에는 ‘비교 언어학’ 내용이 출제되어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고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조어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로,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적용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순한 사실적 사고의 문제를 지양하고 추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글의 정확한 내용을 독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 ●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최신 기술을 소재로, 그 핵심 원리나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6월 모의 평가에 출제되었던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학습 능력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제시되었다.

### ● 예술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를 소재로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과 관련한 예술관을 대비시킨 글이다. 종래의 예술관과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갖는 의미를 뒷받침할 이론을 대비시키고 있다. 작년 수능의 ‘음악에서의 반복’과 6월 모의 평가의 ‘영화’ 지문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고, 개념적 용어가 사용된 점으로 보아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두 예술관을 대비해서 독해할 수 있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출 | 제 | 문 | 항 | 분 | 석 |

### ■ 듣 기

1번의 경우, 방송의 대담을 듣고 이어질 내용을 판단하는 추론적 사고를 묻고 있다. 이 유형의 문제

에서는 이어질 내용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지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번의 경우,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전달하려는 핵심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듣고 이를 종합·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발표자의 설명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만 정리된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3번의 경우, ‘부탁하는 말하기’의 여러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 이를 사례에 적용해 판단하는 문제로 언어적 사고력을 묻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4번의 경우, 면접관의 평가가 적절한지를 다시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해야 할 선지의 순서가 대화의 내용이 제시되는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5번은 매년 출제되고 있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판단 문제이다.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대응 방식은 대담에서의 진행자의 역할이나 진행 방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항은 매년 출제되고 있다. 이는 듣기에서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형식 역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 쓰 기

6번 문제는 유추의 전형적인 원리인 ‘유사성’ 발견하기를 바탕으로 두 대상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추의 원리를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두 대상을 견주지 않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속성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든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끌어내지만 않는다면 해결에 별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다.

7번 문제는 이전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었던 ‘조건’을 제대로 반영한 문구 확인하기이다. 조건으로 제시된 기본적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각각의 선택지에 제대로 적용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다.

8번 문제는, 주어진 개요를 제시된 ‘수정 보완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가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개요에 제시된 주제를 바탕

으로 개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수정 보완 의견’에서 건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9번 문제는 제시된 자료에서 생성된 내용이 개요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판단이 제시된 자료에서 추출될 수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것이 글의 목적과 전달 의도에 부합하는가가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10번 문제는 언어영역 쓰기의 전형적인 문제의 하나인 퇴고 문제이다. 문장 간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연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글 전체의 주제 확인, 어휘 사용의 적절성,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등 문제는 쉽지만 한 문제 안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두루 묻는 문제이다.

### ■ 어휘·어법

11번 문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에 들어 있는 압축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이다. 생소한 용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되므로 정확하게만 적용된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서술어’와 같은 기본적인 어법 관련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을 때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2번 문제는 ‘인용 발화’의 개념을 <보기>에서 설명해 주고 ‘일반 발화’의 특성을 부연 설명한 다음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과 개인의 감정을 직접 전달하지만 형태가 이와 유사한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면 쉬운 문제이다.

### ■ 문 학

#### ● 시가 복합

21번은 시가 영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로 세 작품의 공통점을 찾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정서, 태도, 표현, 이미지 등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익숙한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풀이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22번은 두 작품의 특징을 비교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런데 작품과 작품을 비교하되 구체적으로 시어들의 관계 속에서 답지를 구성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작품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하겠다. 부연하면 작품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시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문항을 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23번은 22번과 유사한 형태이나 작품의 큰 단위에서 비교 감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 답지를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으로 풀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미지, 표현, 시상, 어조 등에 초점을 두고 비교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문항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4번은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일차적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가 선결된 후에 작품의 내용이나 시어 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문항을 해결하면 된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대개 정답은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곤 한다. 이 문항 역시 <보기>와 전혀 관계없는 고향 상실감이 정답으로 설정되었다.

25번은 시구의 기능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시어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작품의 내용이나 시상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어야만 풀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답지를 통해 역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번은 동일한 시어가 각각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같은 시어지만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상의 흐름과 내용의 이해를 통해 시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고전 소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다. 27번은 사건과 인물의 반응을 이해하고 감상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내용 일치 문제에 준하는 평이한 문제였다. 28번 문제는 두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특정 행위(옥피리 연주)가 서로 어떠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그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였다. 이 두 문제는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문

제 해결에 별 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외적 준거를 고려하여 작품에 활용된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물어보는 29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다. 특정 답지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아닌, 외적 준거에서 주어진 개념적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품 속에 적절하게 활용된 선택지를 모두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 한편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판단하는 30번 문제는 지금까지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유형이지만, 한자성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조금은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다.

● **현대 소설**

2010학년도 9월 모의 평가에 출제된 소설 문제는 난이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원론적인 개념과 원리에 관한 문제는 없었고, 출제된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 문제가 많았다.

40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다. 추리 소설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이청준의 서술 특징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지들이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여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다.

41번 문제는 인물이 보여 주는 태도의 이유를 묻는 문제로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42번 문제는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였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했다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43번 문제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제였다. 이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추리하고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요소인지 아닌 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희곡**

48번은 대사의 유형과 기능을 <보기>로 주고 이를 지문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집착해서 지문의 내용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49번은 음향 효과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역시 지문의 내용을 사실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50번은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상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 역시 성급하게 정오를 확

정하지 말고 사실적 차원에서 지문과 어긋난 선지를 고르겠다는 마음가짐부터 지녀야 한다. 따라서 차분한 마음으로 선지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지문의 내용과 사실적 차원에서 어긋나는 것을 고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 **독해**

● **인문**

13번은 정보의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개별 정보에 집착하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항이다. 개별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14번은 화제를 찾는 문제로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수월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으로 인문 지문 관련 문항에서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화제를 선지로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보기>를 활용하여 제시한 점이다.

15번은 제시문의 정보를 종합하여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세부 정보 파악하여 이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16번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찾는 문항이다. 특히 <보기>로 제시된 내용을 윤리 교과서에서 활용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보기>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17번은 ‘질다’의 문맥적 의미를 추리하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수월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 **과학**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는 지문의 분량이 적고 정보량 또한 비교적 적어 글을 읽어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역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8번과 19번 문제는 ‘연니’에 대한 이해 및 그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찾는 평이한 문제였다. 20번 문제는 도표에서 언급한 내용을 시각 자료(지도)에서 찾는 문항이었는데, 이 역시 석회질 연니와 규질 연니의 특성만 정리하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

31번은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단의 요지를 파악하고, 다시 문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체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이 그리 어려운 수준은 아니므로 긴장하지 않고 성실하게 독해를 하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32번은 주장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주장의 요지만을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 언어

33번은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리 문제로, 단순히 사실적 일치 판단 여부를 묻기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 사고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최근의 문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34번은 세부 정보를 활용한 적용 문제로 평이했으며, 35번의 경우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음운 대응 규칙을 적용해 결론을 얻는 추론 문제로 지문의 ‘음운 대응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되면 그리 어렵지 않으나, 정답 이외의 답지들을 오답으로 지워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지문의 핵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대체로 36번 문제처럼 글에서 설명한 여러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거나, 37, 38번 문제처럼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 예술

44번의 구절 이해 문제와 47번의 어휘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 평이한 문제였으나, 45번의 비판적 사고 유형 문제가 <보기>의 관점과 ‘예술의 세속화’를 잘 대비시켜야 하는 문제로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46번 적용 문제 또한 ㉠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학 | 습 | 전 | 략 |

■ 듣 기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 듣기 영역은 기존의 평가 유형이나 요소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없다. 다만 6월과 9월의 모의 평가를 통해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의 유형이 있다면,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런 특징이나 원리에 대한 듣기 문제의 경우, 중요한 내용 요소를 놓치는 순간 추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듣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데, 메모하는 습관과 체계적인 내용 정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듣기 시험에 임할 때는 미리 문제 유형을 본 다음, 전체적인 흐름이나 핵심을 찾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들을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자의 메모 기술이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쓰 기

이번 모의 평가에서 쓰기는 가장 보수적인 문제 구성이라 할 정도로 신유형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나 문제의 내용들이 시각 자료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단편적이고 단순한 사고나 활동은 가급적 배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월 모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도 개요와 관련한 세트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개요 → 발전적인 견해 발견 → 새로운 내용 생성과 반영’의 틀로 요약되는 새로운 흐름은 사실 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섬세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실제 글을 쓴다는 기분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나머지 문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을 간간하게 풀어보면서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 어휘·어법

최근 어법 문제는 문장론을 바탕으로 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품사 구분, 조사·어미의 활용 등 무엇이 출제되고 어떤 것은 안 나온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 이것은 ‘언어 활용 능력’ 측정이라는 언어 영역의 평가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예년의 경험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해법은 역시 기본 내용을 충실히 다지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막상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절대로 다시 틀리지 않는 것이 어법 관련 문제이기도 하다. 어법 교재는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을 완벽하게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기초 위에서 새롭거나 생소해 보이는 개념이나 설명 내용들이 문제에서는 대부분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 ■ 문 학

### ● 시가 복합

어렵고 난해한 작품에 대한 이해와 도전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충실한 감상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 경향으로 보아 작품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능력을 길러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작품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감으로써 현재의 문제 경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 고전 소설

최근 고전 소설은 낯선 한자어를 해석하고 독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설 감상 능력과 서술상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낯선 한자와 표현이 줄어든 만큼,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사건 진행 속에서의 인물의 심리와 태도, 갈등의 양상과 그 이유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개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는 한편, 문학 18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유명한 고전 소설의 전체 줄거리 및 이해와 감상 또한 아울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현대 소설

현대 소설에서는 서술 특징을 묻는 문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등 일반적인

유형이 출제 되었다.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른 문제 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설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해진 시간동안 소설 지문을 읽고 전체적인 상황이나 인물 간 관계 및 소재나 공간의 상징적 의미 등을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원리나 개념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원리와 개념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정답과 오답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희곡

문학 영역은 대체로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시가 복합과 기타 장르로 영역이 나뉘어 출제된다. 앞의 두 영역은 고정되어 있고 뒤의 두 영역은 해마다 출제 형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즉 지문 구성과 문항수가 상당히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출제 양식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시간 배분 능력과 문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난 6월 평가는 뒤의 두 영역이 현대시와 고전 시가 복합의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번 9월 평가는 6월과 장르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대시-고전 시가 복합과 희곡의 형태로 출제되었다.

전체적 특성으로는 늘 그렇지만 지문의 내용을 사실적 차원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영역에는 해석의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늘 사실과 추론의 경계에서 갈피를 잡지 못 하고 헛갈리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모든 선지를 추론의 문제로 오인하고 제시된 선지가 추론 가능한 선지인가 아닌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추론은 어디까지나 의견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수능 문제의 정답은 항상 사실 차원의 정오를 묻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추론 가능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 차원의 일치 여부만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 독 해

### ● 인문

중심 화제와 주제,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 훈련을 해야 한다. 이는 글에서 구체적인 예나 설명들을 토대로 개념과의 연관성 하에 독해하는 것으로 꾸준히 연습하면 독해 능력이 신장된다. 또한 핵심 개념을 유사한 사례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 ● 과학

출제 경향에서도 밝혔듯이 과학 지문은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와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글이 선정되고 그러한 정보들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들을 확인만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찾는 식의 학습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항상 글을 읽으면서 주어진 정보들을 체계적이면서도 간략히 머리에 정리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고, 특정 개념 혹은 이론에 대한 소개가 나올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문들을 읽고 푸는 훈련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사회

사회 지문은 ‘변증법적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문이어서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선지식이 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였다. 따라서 문제지를 풀 때 지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이 나온다면 풀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천천히 지문을 재독하면서 이론 자체를 습득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직관적인 독서보다는 지문 전체를 꼼꼼하게 읽는 성실한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 ● 언어

언어 지문은 언어 규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고전 문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9월 모의 평가에는 비교언어학이 출제되어 국어학에 국한하지 않고 언어 일반으로 확장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언어학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언어 체재에서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독해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언어 지문은

생소한 이론보다는 이미 정립되어 있는 이론과 문법을 활용하여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익숙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언어학과 국어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낯선 언어 지문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낯선 최신 기술의 핵심 원리나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다양한 지문을 접해 보면서 그 글에 담긴 원리나 과정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독해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 영역은 짧은 분량의 글에 비해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으므로, 제한된 시험 시간 안에 주어진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주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예술

예술 지문은 음악, 미술, 건축, 영화, 사진, 무용 등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나 다른 지문에 비해 설명적 성격이 강한 평이한 지문이 대부분이다. 6월과 9월의 예술 지문은 다소 이론적 경향이 강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이로 볼 때, 올 수도 예술 관련 이론이 출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지문을 독해할 때 핵심 개념이나 관점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념이나 관점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적용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좋다.

[1~5] (듣기)

1. 구체적 정보를 통한 내용 추리

건축가 김 선생님은 계단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계단이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연결해 준다거나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교류한다는 정보 등을 통해 앞의 내용을 요약한 ③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2. 핵심 의도 추리

① 발표자는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 후 국내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한 후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개념(원리)의 이해와 적용

① 여학생은 먼저, 공책을 잠깐 보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공책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먼저 한 다음, 공책을 빌려 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다.

4. 비판적 사고

④ 면접관은 ‘소설가와와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드는 과제를 제시한 후 지원자에게 해결 방법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 조사-소설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 작성-이를 인터뷰에 활용 등의 순서로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열심히 하겠다, 부딪쳐 봐야 안다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5. 말하기 방식의 사실적 판단

④ 면접관은 세 번째 질문까지는 핵심만 간략히 질문을 하였으나 네 번째의 ‘소설가와와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드는 과제 해결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추가적인 보충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에게 발언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10] (쓰기)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대상 간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유추적 사고의 핵심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의 확인이다. 즉, 어떤 판단이 있을 때 그것이 주어진 대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비로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①~④의 내용들은 적절한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중에서 (ㄱ)에 제시된 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전,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단계로 이는 ‘지적 성숙’이 일어나기 전에 생기는 현상과 대응된다(예, 치열한 노력과 결과에 대한 회의, 지와 무지의 혼재 등). 그러나 이것을 ⑤처럼 지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지식의 핵심 파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7.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보기> 조건 중 ①과 ④는 ‘협동심’이 반영되지 않았다. ③에서는 ‘협동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색채 이미지’의 적용도 찾을 수 없다. ⑤에는 ‘협동심’에 대한 내용과 ‘자연물을 이용한 비유’가 없다.

8. 생성된 내용과 심화 자료의 적절성 평가

①은 자료 (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자료 (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복 변형’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내용이다. ④도 (ㄷ)이 교복 선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타당한 설명이다. ⑤는 전체 글의 의도와 취지를 환기하는 마무리로서 무난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 중 어디에서도 ‘교복 구매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 문제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②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9. 개요 활용하기

자료 활용형 문제는 선택지의 내용이 제시된 자료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지 그 주제(내용)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연상된 내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정답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안내자’이지만 후자는 오답으로 유인하는 ‘유혹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①, ②는 학생들의 교복 재구매 요건으로 파악된 ‘내구성’ 항

목이 첫 번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치수’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는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타당한 판단이다. (ㄴ)에 나타난 ‘디자인’과 ‘유행’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③도 적절한 내용이다. ⑤도 (ㄴ)에 나타난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지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상표’ 선호 경향 때문에 오히려 ‘개성 표현 욕구’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ㄱ)와 (ㄴ)를 결합해서 생성한 ④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10. 고쳐 쓰기

㉠ 앞의 문장이 뒤 문장 내용에 대한 이유가 되므로 ㉠은 ‘그래서’로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 ‘슬기스럽’의 ‘ㄹ’이 ‘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 내용 또한 적절하다. ‘어디어디에 머무르다’의 뜻인 ‘들르다’의 활용형은 ‘들려’가 아니라 ‘들러’(들르+어)가 맞다. ‘들려’는 ‘들리+어’의 축약형이고 이 때 ‘들려’의 기본형인 ‘들리다’[어간 ‘들’ + 피동 접사 ‘리’ + 연결형 어미 ‘어’]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나 짐등을 다른 사람이 ‘들고 가게 하는’ 뜻을 가진 사동사[어간 ‘들’ + 사동 접사 ‘리’ + 연결형 어미 ‘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으므로 ㉡도 ㉤처럼 피동형 문장을 피하여 쓰는 것이 보다 우리말다운 표현이다.

그러나 ㉣을 서술어로 하는 주어는 문장 앞 부분의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도서관 이름을 ‘슬기스럽’이라고 붙인 이유이므로 ㉣은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정도로 고쳐야 적절하다.

## [11~12] (어휘 · 어법)

### 11. 어휘

<보기 1>의 원리에 비추어 <보기 2>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일단 ㄱ ~ ㄴ은 ‘의미 쏠림’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ㄹ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또 ㄱ ~ ㄴ은 A로, ㄴ은 B로 ‘쏠림’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쏠림’이 일어나는 ㄴ과 ‘쏠림’이 일어나지 않는 ㄹ에는 공통적으로 서술어 ‘이다’가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어의 동일성을 통해서 ‘의미 쏠림’ 현상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의 진술은 틀린 것이다.

## 12. 어법

<보기>에서 인용 발화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의 경우는 모두 다른 사람이나 매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용 발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은 발화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 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은 인용 발화의 형식을 빌려 현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일반 발화이므로 인용 발화라고 할 수 없다.

## [13~17] (인문)

### 13. 정보의 종합적 이해

둘째 문단에서 ‘천(天)은 자연 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이라는 문장에서 ‘천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이라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다섯째 문단의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천은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라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추출한 정보를 종합하면 ‘천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는 ㉣번 선지가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 셋째 문단의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는 내용과 둘째 문단의 농경 사회에서는 자연현상의 차원에서 천을 중시하여 자연천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 사회에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진 ‘천(天)’은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1, 5문단)는 내용과 ‘초월적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선지 ㉡가 지문과 배치됨을 알 수 있다.
- ㉢ 둘째 문단의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으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천’의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 ㉤ 넷째 문단의 권력 행사의 기반이 되었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은 백성을 억압하는 부작

용을 낳았다는 내용과 다섯째 문단의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 행위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14. 화제 찾기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화제를 추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각 문단의 요지를 파악하여 중심 화제를 추리하는 문제로, 각 문단의 요지에 따라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천(天)에 대한 다양한 이해’ → ‘자연천의 개념’ → ‘상제천의 개념과 정립 과정’ → ‘의리천의 개념과 정립 과정’ → ‘내면화된 천의 의의와 가치’로 이러한 글의 흐름과 문단의 요지를 중심으로 ‘천의 의미 변천 과정과 의의’라는 주제를 최종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는 ‘㉠ 개념의 의미 변천’이라 하겠다.

#### 15. 핵심 구절의 의미 이해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天)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는 문장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의미 준거는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천명 의식의 변화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 의식’은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의식’으로 변화하였다.

\* 천의 개념 확장 과정 : 글쓴이는 천의 개념을 ‘자연천→상제천→의리천→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서의 천→내면화된 천’으로 확장·심화시켜 서술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의 개념’을 준거로 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은 인간이 내면화된 천을 발현하여 ‘도덕을 실현하고 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인간 행위의 타율성’은 ‘천명을 빙자한 통치자에 의해 인간 행위가 억압받고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천’의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으며,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는 셋째 문단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인간 행위의 자율성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 의식에 근거한 통치자의 억압적 권력 행사에 대한

도덕적 반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부각되기 시작한 다. 즉 ‘의리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④ 천의 개념이 상제천에서 의리천으로 변화하면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⑤ ‘정치적 개념의 천명 의식’이 ‘도덕적 반성’을 통해 수정되면서 인간 행위가 타율성에서 자율성을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 16.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 자연천 :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연은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며, 하늘도 자연신의 하나로 여겨졌다. 하늘을 ‘신’으로 간주한 인간은 도덕적 자각도 없었으며,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으며, ‘자연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 상제천 : ‘상제의 개념’과 ‘숭배의 대상인 하늘’이 결부되어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을 관장하는 등 종교적 성격의 ‘상제천’은 의지를 지닌 절대 권능의 존재가 된다. 절대 권능인 상제천은 통치자들에 의해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권력 행사의 정당화에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 의리천 : 도덕성을 기저로 한 의리천은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천명을 거두고 백성의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 역할을 담당한다.

ㄱ : ‘하늘의 크기는 무한대이며,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는 끝이 없다’는 본문에서 ‘천은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 수 없다는 자연천’의 개념과 연결된다.

ㄴ :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 권능의 상제천’의 개념과 유사하다.

ㄷ :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는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리천’의 개념과 유사하다.

ㄹ : ‘하늘은 우주 삼라만상의 개별 대상들에게는 명을 내리지 않지만, 만물은 우주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운행한다’는 도가 사상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명제이다. 즉,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개별 존재물들에게도 천명을 내리지 않지만, 모든 만

물이 저절로 운행되도록 맡겨 둔다'는 것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을 포괄하고 있는 자연천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자연천에는 ㄱ, ㄴ이 상제천에는 ㄴ이 의리천에는 ㄷ이 연결될 수 있다.

**17. 문맥적 의미 추리**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질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A. 재물 같은 것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
  - B. (대상의 색깔이) 보통의 정도보다 뚜렷하거나 강하게 나타나거나 보이는 상태에 있다.  
예)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다. 화장이 질다. 녹음이 짙은 여름
  - C. (안개나 연기 등이) 잔뜩 끼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 D. (냄새가) 보통의 정도보다 강한 상태에 있다.
  - E. (액체에 녹아 있는 물질의 양이) 보통의 정도보다 많은 상태에 있다.  
예) 커피를 짙게 타다
  - F.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 따위가) 보통의 정도보다 많은 상태에 있다. 농후하다.  
예) 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질다.
- 이 중 ㉔는 'F'의 의미에 가까우며, 선지 ①의 문맥적 의미 역시 'F'에 가깝다.

**[오답 피하기]**

②는 E ③은 C ④는 D ⑤는 B에 해당된다.

**[18~20] (과학)**

**18. 내용 추론**

첫째 문단에서 점토류의 퇴적 속도(2mm/1,000년)보다 연니의 퇴적 속도(1~6cm/1,000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 있다.
- ② 둘째 문단에서 30%이상 포함된 퇴적물을 석회석연니라 부른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다.
- ③ 첫째 문단에서 연니는 '표층수에 사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해저에서 형성된 후의 용해 속도가 느릴수록' 많이 퇴적된다고 하였다.
- ④ 넷째 문단에서 '규질연니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19. 내용 일치 및 정리**

연니는 석회질연니와 규질연니의 유형이 있다(ㄴ). 석회질연니는 대서양 중앙 부분과 동태평양 등에, 규질연니는 남극 부근과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많이 분포한다(ㄷ). 연니 연구는 과거의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데 열쇠 구실을 한다(ㄹ).

**20. 시각 자료에 적용하기**

(가) 지점과 (ㄷ) 지점에서 시추되는 연니는 규질연니이다. 넷째 문단을 참고할 때, 그 중 (가)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낮은 수온에서도 해수의 수직 운동(용승 현상)에 의해 규질연니가 분포한다고 하였으므로 '남극 부근(C)'으로 볼 수 있다. 또한 (ㄷ)는 높은 수온에서 표층수에 방산층이 많이 분포한다고 하였으므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A)'으로 볼 수 있다.

(나) 지점에서 시추되는 연니는 탄산염 성분의 퇴적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참고할 때, '대서양의 중앙 부분(B)'으로 볼 수 있다.

**[21~26] (시가 복합) (가) 이육사, '소년에게' (나)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ㄷ) 이현보, '어부단가'**

**(가) 소년에게**

**[작품 해제]**

- 작가 : 이육사
- 제재 : 소년
- 주제 : 맑은 영혼과 곧은 기상을 지닌 소년 예찬

**[해설]** 이육사 자신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는 듯한 작품이다. 이슬이 빛나는 연못가에서 맑은 냇을 간직하고 태어난 소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곧은 기운을 목숨만큼이나 사랑한 성품을 지녔다. 또한 그는 동상처럼 언제나 곧은 기상을 지녔고 시련에 맞서 이겨내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다. 이러한 내용은 민족의 시련기에 불굴의 의지로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소년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작품 해제]**

- 작가 : 황지우

- 제재 : 나무
- 주제 : 외적 시련을 극복한 나무의 생명력

**【해설】**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체험했던 황지우 시인의 시세계를 염두에 두면, 이 시에서의 겨울과 영하의 땅은 현실을 상징한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고 열악한, 모든 생명들을 죽게 만드는 고난의 현실을 상징한다. 나무라는 생명체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억압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나무는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겨울 나무’와 ‘봄 나무’는 대립적인 두 상황을 의미한다. 전자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후자는 이를 극복하고 생명력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마침내 겨울을 극복하고 봄을 쟁취하는 나무의 모습은 자기 생명력의 확인과 굳은 의지의 산물임을 보여 준다.

#### (㉡) 어부단가

##### 【작품 해제】

- 작가 : 이현보
- 제재 : 어부(漁父)의 생활
- 주제 :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漁父)의 한정(閑情)

**【해설】** 생업을 떠나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하는 풍류객으로서 어부(漁父)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우리 선인들이 예부터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운치 있는 생활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속에 묻혀 은일을 즐기지만 마음속에는 인간사(人間事)에 대한 관심을 벗을 수는 없음이 이 작품의 특징이고 감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와’와 ‘잊은 때가 있으랴’라 한 것은 자연 속의 삶과 임금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한 삶 사이의 갈등이며 당대의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라 할 수 있다.

#### 21. 공통 특징의 파악

(㉠)는 소년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예찬을 이슬, 진주, 연꽃, 박꽃, 석양, 서풍, 별 등을 통해 표현하였다. (㉡)는 겨울 나무와 봄 나무를 통해 시련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노래하였다. (㉢)는 자연물을 통해 속세와 단절된 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연물을 통해 노래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세 작품은 모두 자연물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상과의 조화를 노래한 작품은 (㉡)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④, ⑤ 해당되는 작품은 없다.

#### 22. 시어를 통한 감상

시의 맥락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맑은 냇을 지니고 태어난 소년이 박꽃처럼 자랐다는 구절을 통해 ‘박꽃’은 순수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아 꽃을 피운 나무의 ‘꽃’은 생명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영하 13도’는 나무로 하여금 생명력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
- ② 아침 이슬이 진주처럼 빛나는, 그리고 연못가의 연꽃이 피는 때에 태어난 아이가 맑은 냇을 지녔다는 점을 생각하면 ‘냇’은 가능하나, ‘혼(魂)’은 겨울을 이기려는 ‘온 몸’으로의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으스스지도록’은 대결보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들이받으면서’는 거부가 아니라 4월의 하늘을 향하여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 23. 종합적 감상

(㉠)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는 소년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답지 ④는 앞뒤가 바뀌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 3연, 6연, 7연은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으나 (㉡)는 시각적 이미지만이 나타나 있다.
- ② (㉡)는 4음보의 운율에, 3·4(4·4)의 음수율을 바탕으로 한 운율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는 전체적으로 대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⑤ (㉠)의 2연, 7연에, (㉡)의 모든 연에 영탄 어조가 나타나 있다.

#### 24.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

(㉠)의 6연의 ‘노래’는 하늘이 맑고 푸른 때에, 맑은 하늘을 향해 부르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큰장 목놓아 흘러’는 <광야>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역사적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굳은 기운’은 ‘죽도(竹刀)와 같은 것으로 작가의 기상을 가리킨다.
- ③ ‘동상답게’라고 표현함으로써 굳은 신념과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별들 춤다’ 얼어붙는 시련의 때에 화자의 극복 의지를 ‘미친들’로 표현하였다.

**25. 시구의 의미와 효과 파악**

‘천천히, 서서히, 문득’은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운 나무가 잎을 드러내는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아, 마침내, 끝끝내’는 나무가 꽃을 피우는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굳이 시선을 가리키자면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천천히, 서서히, 마침내, 끝끝내와 같은 부사어들은 그 자체가 가진 의미와 쉼표를 통해 시상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 ② 쉼표를 사용해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배치함으로써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독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 ③ 천천히와 서서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활용하여 긴 시간을 반영하고 있다.
- ④ 나무는 마침내, 끝끝내 자기의 온몸으로 꽃을 피운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6. 시어의 기능 파악**

동일한 시어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수에서 화자는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을 통해 세상과 단절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때에 ‘돌아보니’는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청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5수의 ‘돌아보니’는 임금이 계신 장안(한양)을 향한 것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 그러나 화자는 ‘두어라 내가 근심할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체할 현명한 선비가 없겠는가’라며 미련을 접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 삶이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만첩의 산은 자연과 세상을 단절시킨다.
- ② 세상의 붉은 먼지를 가리키는 홍진과 단절한 상태에서 화자는 월백한 강호에서 무심을 느끼고 있다.
- ③ ‘무심하여라’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보여 준다.

- ④ ‘돌아보니’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도 정치적 이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27~30] (고전 소설) 남영로, ‘옥루몽’

**‘옥루몽’**

**【작품 해제】**

- 작가 : 남영로
- 갈래 : 영웅 군담 소설, 한문 소설, 장편 소설
- 성격 : 전기적, 현실 비판적
- 주제 :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

**【해설】**

한문본 <옥루몽>은 64회로 되어 있는 장회 소설이며, <구운몽> 분량의 3배나 되는 대장편이다.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소설 가운데 하나로서, 구성이 치밀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표현력이 빼어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성격이 아주 개성 있게 창조되어 있어서, 고전 소설 가운데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다.

<옥루몽>은 <구운몽>과 같이 중국을 배경으로 일부다처제의 봉건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인연 맺음) 및 무용담, 여성끼리의 쟁총담(사랑을 다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밀한 구성 및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사건 표현의 구체성 등에 있어서 <구운몽> 이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옥루몽>이 한문으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옥루몽>은 어느 조선 시대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봉건적인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상·중·하 세 권 중 하권에는 주인공 양창곡이 출전(出戰)하여 위대한 무공을 세우고 돌아와 연왕의 책봉을 받고 다섯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생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 생활의 호화로움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었다.

<구운몽>을 환골탈태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옥루몽>은 그 구조나 주제·사상 등에 있어서는 <구운몽>과 사뭇 다르다. <구운몽>은 중국에는 인생을 부정하고 영원한 종교적 세계를 지향하나 <옥루몽>은 인생을 긍정하고 현세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제 의식이 사뭇 다르다. 또한 <구운몽>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3대 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혼합·융화시켜 놓았지만, <구운몽>이 불교적인 인생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옥루몽>은 도교적인 사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연 설명하면 <구운몽>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인간 세계의 영화를 마음껏 누리다가 만년에 가서 인간 세상의 무상과 허무를 느끼는 나머지 다시 옛날의 육관대사에게로 돌아가서 불도를 닦아 극락세계로 간 데 반해, <옥루몽>의 남녀 주인공들은 인간 세계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다가 인간 세계의 수명이 다하자 다시 옛날의 천상으로 올라가서 선관이 된다.

한편 <옥루몽>의 내용에서 주인공을 통해 왕도 정치를 펴면서, 과거 시험의 부정을 척결하고 간신들의 악행을 막아 선정 치민(善政治民)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실 개혁의 의지와 방법을 담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19세기 중엽에 쓰여진 이 작품은 현실적인 공리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이상과 염원을 구현하고 있다.

## 27. 사실적 내용의 이해

강남홍은 적장인 명나라 장수 뇌천풍과 맞서 싸울 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시종일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뇌천풍이 분기탱천하여 덤벼들지만 태연히 웃으며 꿈쩍도 않고 있는가 하면, 뇌천풍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싸울 의사 없이 뒤를 돌아보며 칼을 거두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중략 이후 부분에서 강남홍은 손삼랑과 연화봉을 올라가서 멀리 명나라 진영을 바라볼 뿐 명나라 진영으로 잠입하지는 않았다.
- ③ 양창곡은 보살이 백옥 여의를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꿈을 꾸 후 놀라 깨게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 ④ 양창곡이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양창곡이 이상한 꿈을 꾸 후 깨어났을 때는 이미 군사가 동요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적이 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했다는 내용은 틀린 진술이다.

## 28. 인물의 행위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서술상의 특징 파악

강남홍이 연주한 곡조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양창곡이 꿈에서 깨어나 강남홍의 옥피리 소리를 듣고 나서, 그 통소 소리는 자신이 이미 아는 곡조라고 한 점에서, 강남홍이 연주한 곡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곡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강남홍의 연주를 듣고 명나라 십만 대군이 잠에서 깨어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슬피 하게 된다.
- ③ 양창곡이 연주를 하자 군사들의 처량했던 마음이 풀리며 기세가 늙음해지게 되었다.
- ④ 전쟁 상황 속에서 통소를 연주해서 서로 적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비로움을 주고 있다.
- ⑤ 강남홍이 연주할 때 ‘서풍은 쓸쓸히 불고 별과 달은 하얗게 빛나’고 있으며, 양창곡의 연주는 마치 ‘봄날의 물이 장강에 흐르는 듯, 삼월 조화로운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 하였다.

## 29. 외적 준거에 따른 서술상의 특징 파악

14회 제목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서사를 암시하고 있으며(ㄱ),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는 문구를 통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으며(ㄴ), 각설 이후 대목에서는 뇌천풍이 강남홍에게 맞서다 말에서 떨어진 장면을 부연, 반복하여 서술하고 있다(ㄷ). 또한 ‘각설’과 같은 상투어를 통해 회 의 첫 장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ㄹ). 하지만 [A]에서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A]의 첫 단락 끝에 나타나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는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지만,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예컨대 슬프구나, 처량하구나 등)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 30.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의 이해

㉠은 뇌천풍이 강홍림에게 무모하게 뛰어들다 승부에 져서 말에서 굴러 떨어진 후 황겁히 도주하는 장면이다.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뜻하는데, 뇌천풍이 자신의 진영으로 달아났다는 점에서 ㉠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② 기사회생(起死回生) :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 ③ 삼십육계(三十六計)를 놓다 : 급하게 도망을 치다.
- ④ 혼비백산(魂飛魄散) :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 는 뜻으로, 몹시 놀라 뉘을 잃음
- ⑤ 이란투석(以卵投石) : 달걀로 돌을 친다는 뜻으로,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함.

[31~32] (사회)

31. 논지 전개 방식 파악

(ㄱ) 단락은 지리 결정론의 근거를 먼저 제시한 후 지리 결정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ㄷ) 단락은 지리 결정론의 반례를 제시한 후 지리 결정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수정된 제도 결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 ③이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ㄱ)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는 제도 결정론 제시 - 제도 결정론의 근거 제시 - 제도 결정론에 대한 반론 제시 - 반론의 근거 제시
  - (ㄴ) 지리적 조건이 경제 성장의 직접 원인이라는 지리 결정론의 근거 제시 - 지리 결정론 제시
  - (ㄷ) 제도 결정론의 지리 결정론에 대한 반박 사례 제시 - 제도가 경제 성장의 직접 원인이고 지리는 제도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 원인이라는 수정된 제도 결정론 제시 - 수정된 제도 결정론의 상술
  - (ㄹ) 수정된 제도 결정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수정된 지리 결정론 제시

32. 주장에 해당하는 사례 파악

<보기>중 ㄱ의 사례는 기온이 높은 나라가 생산성이 낮아서 소득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리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ㄴ의 사례는 재산권 제도가 발달한 북미가 그렇지 않은 중남미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도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ㄷ의 사례는 기후의 탓으로 불평등한 제도가 정착한 나라가 경제 성장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수정된 제도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이를 종합하면 선지 ③이 정답이다.

[33~35] (언어)

33. 세부 정보를 통한 추리

둘째 단락을 통해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는 음운 대응 규칙에 의해 체계적인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넷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다섯 째 단락을 통해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깝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어 추정은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은 타당하다.
- ③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④ 둘째 단락에서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체계적 유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교 방법에서 대부분의 언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볼 수 있다.

34. 구체적 사례

㉠의 ‘외적 재구’는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한 방법이고, ㉡의 ‘내적 재구’는 한 언어 내에서 옛 모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단어의 어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사용된다. 이를 통해 ㉡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는 a이다. b는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내적 재구’가 더 적합하다.

35. 사례 적용 / 추론

본문의 A 언어와 B 언어의 /t↔s/의 대응이 <보기>에서 /f↔h/로 동일한 방식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은 타당한 추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국어와 몽고어의 조어는 <보기>의 자료만으로 재구할 수 없다. 어느 것이 더 오래된 형태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국어의 ‘pul-’ 만주어의 ‘fulgije’에서의 대응을 보면 꼭 /l/이 /ru/에 대응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예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주어가 국어보다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⑤ /m/과 /n/의 대응은 동일한 단어에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대응된다고 할 수도 없고, 변화의 과정 또한 추론할 수 없다.

[36~39] (기술)

36. 세부 정보의 확인

주어진 제시문은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작동 과정을 통해 기계의 ‘학습’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글의 첫 문단에서는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갖추어야 하는 학습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둘째 문단에서부터 넷째 문단까지는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학습 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넷째 문단에서는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학습 과정 중, 기계가 추출한 입력 특징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학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고 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서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② ‘우리나라’ 자동분류기로 이 글의 중심 화제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또, 셋째 문단에서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므로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는 선택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둘째 문단에서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37. 사례에의 적용

사례를 찾는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핵심 정보를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사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 학습’은 자동분류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시문의 설명에 근거할 때, ①은 전화기에 저장된 수신 거부 목록의 번호를 단순히 기억, 비

교하는 기능이므로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쓸 때, 번호를 쓰는 손동작과 다른 손동작을 기계가 스스로 구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8. 시각 자료에의 적용

제시문에 설명된 ‘㉡ 감독학습’의 과정을 시각 자료로 도식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둘째 문단을 통해 가장 먼저 우편번호의 입력 특징을 추출해야 함을 짐작할 수 있고, 3문단에서 분류기는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하고, 이 학습을 통해 ‘5’,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④이다.

3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모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한자어로 바꾸어 쓰는 문항이다.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모아 군집화 하는 함수를 만든다.’는 문장에서 ‘모아’는 입력 특징을 모아서 그 특징들을 합친 함수를 만든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모아서 합치다’의 의미를 지닌 ① ‘취합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융합하다’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다’의 의미이다.
- ③ ‘조합하다’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짜다’의 의미이다.
- ④ ‘규합하다’는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으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 ⑤ ‘결합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의 의미이다.

[40~43] (현대 소설) 이청준, ‘잔인한 도시’

잔인한 도시

【작품 해제】

- 작가 : 이청준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
  - \* 사내 - 오랫동안 복역한 죄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옥중 동료와의 언약을 지키는 인물.

\* 새장수 - 풀어준 새를 다시 잡아다가 파는 사내. 우리 시대에 인간 사슬을 만드는 자로 은유된 인물.

- 주제 : 현실에 대한 현대인의 소외와 인간 상실의 문명 비판. 또는 고귀한 삶에의 열망.

**【전체 줄거리】**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한 어느 가을 날 해질녘, 한 사내가 감옥에서 풀려 나온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초라한 행색의 사내는 교도소 길목을 빠져 나와서 공원 입구에 있는 ‘방생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 곳에서는 새장수가 방생을 외치면서 손님을 끌고 있었다. 방생하는 모습을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내는 다음날부터 공원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모은 돈으로 옥중 동료들을 대신해 방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는 날 면회 오도록 연락해 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사내는 며칠을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는 새장수의 비정한 상술을 보게 된다. 새장수는 새들의 날갯죽지 밑을 가위질해서 멀리 날지 못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새를 방생하면 한밤중에 몰래 후레쉬를 들고 다니며 근처 공원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들을 다시 잡아다가 조롱 속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사내는 새장수의 그런 비정한 상술에 분노를 느끼지만 새장수는 그런 사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새장수에게 쫓기던 새 한 마리가 사내의 품속으로 숨어들어 오게 된다. 그 새는 사내가 전에 방생한 새였다. 사내는 그 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위한 방생을 계속한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옥중 동료들과의 언약을 기필코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내는 자신을 따르는 그 새를 데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해와 감상】**

<잔인한 도시>는 새장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작된 해방과 구속의 반복을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적 삶을 하나의 리얼리티로 제시하고 있다. 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러한 악순환의 끈을 끊어 버리고 인간 상주(常住)의 따뜻한 고향으로 귀환하려는 인간의 꿈과 휴머니즘적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는 어두운 현실과 밝은 이상

을 설득력 있는 구상적 이미지로 다 같이 부각시킴으로써 관념적인 주제에 박진감 있는 현실성을 부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40. 서술 특징 파악하기**

제시문은 왜 새를 파는 젊은이의 놀림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사내가 그 곁을 왜 떠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사내가 새를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내가 새를 살 수 없는 이유는 악몽, 그리고 새들이 다시 잡혀오는 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내가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한 전모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지는 않는다. 사내가 어느 날 밤에 벌어지는 ‘밤새 사냥’을 겪게 하면서, 새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없으며, 인물 사이의 긴장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서술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는 거의 서술되지 않았다. 인물의 심리는 주로 직접 제시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배경인 ‘공원’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없다.

**41. 인물의 태도 이해하기**

사내가 젊은 새장수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아직도 ~ 안 된다고 생각했다’에서 찾을 수 있다. 사내는 ‘가막소’에 있는 친구를 위해 새를 반드시 사야 하기 때문에 새장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42.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사내의 줄음기가 사라지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감과 긴장감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진짓불빛’은 폭력성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진짓불빛’을 폭력성으로 해석한다면 빛에 쫓긴 새가 사내가 쫓는 성냥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것은 새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로 보여 준다. 그것은 그 새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새들의 생태를 통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3. 문맥적 의미 파악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밤새 사냥으로 인한 사내의 심리 상태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런 사연’ 즉, 새가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지에 대한 사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오답 피하기]

‘이상스런 일(㉠)’은 전깃불을 이용하여 새를 사냥하는 사건이며, ‘밤새 사냥(㉡)’은 전깃불빛을 이용하여 새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숲 속의 불빛(㉢)’은 새에게 가해지는 위협적 요소이다. ‘분별없는 행동(㉣)’은 불빛에 쫓긴 새가 다시 성냥불빛을 보고 사내 품으로 날아온 일이다. 이를 통해 다시 새가 조롱 속으로 돌아오는 이유를 추리할 수 있다.

[44~47] (예술)

44. 내용의 이해

②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은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작품의 완결성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용자의 참여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과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수용자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 ③ 예술 이외의 영역들을 열거해 그와 관련된 욕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의 앞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의 앞 문장을 보면 긴장과 갈등에 의한 인간 경험을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시키는 체험임을 확인할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사고

‘예술의 세속화’는 이 글을 통해 이해할 때,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을 미적 체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삶을 통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기>는 인간 경험은 비슷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미적 관조’라는 개념은 작품과 수용자의 상호 관계를 부정하고 작품에 의한 수용자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의 세속

화’와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⑤에서 예술의 세속화가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킨다고 했으므로 <보기>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견해에서는 삶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46. ㉡의 입장은, 예술적 시도가 예술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때 미적 체험은 듀이의 입장에서 인간 경험의 통합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인터넷 타기」에 적용한다면, 「인터넷 타기」의 예술과 수용자의 상호 작용이 인간 삶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례여야 한다. ⑤에서 이야기의 내용인 ‘반지’가 스크린을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작품이 삶과 작품뿐만 아니라 아내와 나와의 통합으로도 나아가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예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작가의 창작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호 작용과 관련 없다.
- ② 세상의 관심과 욕구에 초연한 태도는 종래의 예술관이므로, 상호 작용이 아니다.
- ③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관한 반응이다.
- ④ ㉡의 입장은 일상생활의 맥락으로 작품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맥락과 달리 신비감을 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7. 어휘(사전적 의미)

④ ‘부단(하다)’: {주로 ‘부단한’ 꼴로 쓰여}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

[48~50] (희곡) 함세덕, ‘동승’

동승

[이해와 감상]

함세덕의 ‘동승’은 한국 근대 희곡사상 가장 탁월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산사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적 삶과 구도적 삶 사이의 갈등을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란 열네살의 사미승 도념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주지 스님은 구도의 삶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지만 도념은 마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독경 소리보다 더 좋은, 그리고 염불보다는 토끼 사냥이 더 좋은 그냥 하나의 어린 아이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주지는 감정과 욕망에 얽매이는 인간적 삶의 고통을 잘 알기에 도념

을 산사의 삶에 묶어두려 한다. 여기에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미망인과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초부가 도념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강화시키는 매개자로 등장한다.

이러한 인성과 불성의 갈등이라는 무게 있는 주제가 권위적이고 작위적인 해설이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을 울리는 서정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 도달한 높은 경지이다. 작품 곳곳에 배치된 산목련이나 종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같은 이미지들, 그리고 인물들의 사소한 대화와 행동들이 불리얼시키는 아름답고도 애뜻한 서정에 공명한 독자들은 작품의 주제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느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적인 삶이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되는 행복과 고뇌의 이중성을 독자에게 보여 주면서 마침내 산사를 떠나는 도념의 선택을 통해 마음의 평정도 중요하지만 인간 사이의 절절한 감정이란,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경험해야 할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작가 의식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

#### 48. 대사의 유형과 성격 파악

도념이 독백을 한 이유는 주지의 독경 소리를 듣고 주지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 ③은 ‘초부와 헤어진 후’라는 동기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라는 심리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초부와 도념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잘 아는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초부는 처음에는 도념을 말려보려고 하지만 도념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도념의 갈 길을 재촉한다. 이를 통해 초부가 도념의 굳은 결심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도념의 독백을 통해 도념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독자는 도념의 심리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도념의 주지에 대한 애뜻한 정서에 공감하게 된다.
- ⑤ 독백 후의 도념은 대사보다는 행동으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49. 음향 효과의 기능 파악

원내에서 들리는 목탁과 염불 소리는 동리를 내려다보는 도념의 한숨 소리와 대비되어 인간적 삶과 구도적 삶의 대비라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도념의 한숨 소리는 고뇌가 있지만 감정이 살아있는 인간적 삶을, 목탁과 염불 소리는 고뇌는 없지만 감정이 제거된 청정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도념과 주지 사이에는 인간적 애정이 흐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적 차원에서도 지문에는 주지의 생각과 행동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라고 말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범종 소리와 산울림은 작품의 공간이 산사임을 알려준다.
- ② 초부가 종소리를 듣는 장면을 통해 관객이 함께 종소리를 듣고 작품의 분위기에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종소리가 그치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 ④ 주지의 독경 소리를 듣고 도념의 행동이 일어나므로 맞는 말이다.

#### 50. 배경의 상징적 의미 파악

도념이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을 원망한다는 내용은 지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추론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단지 도념이 절을 떠나는 것을 주지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추론의 근거만 나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선지 ③이 정답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초부와 갈라져서 내려가야 하는 비탈길은 혼자가 된 도념의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내려가는 곳이 세상이므로 도념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산사에서의 생활이 종료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⑤ 가파른 비탈길을 통해 도념에게 닥칠 시련이 암시된다고 볼 수도 있다.